

연예뉴스 스테이션

진도희, 혜장암으로 별세...오늘 발인

혜장암으로 별세한 1970년대 인기 여배우 진도희(본명 김태아)가 29일 발인한다. 향년 66세로 26일 사망한 고인의 빈소는 서울 신촌동 연세대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에서 마련됐다. 고인은 1972년 배우 박노식의 연출 데뷔작인 영화 '자크를 채워라' 주연으로 발탁돼 연기를 시작했다. 이후 '늑대들' '원녀' '죽어서 말하는 연인' 등 영화에서 주연으로 활약하며 신성일 등 당대 인기 배우들과 호흡을 맞췄다. 1949년 부산에서 태어난 고인은 왕성하게 연기활동을 하다 결혼과 동시에 은퇴했고, 미국으로 이주해 생활하면서 국내 한 신문사가 주최한 신춘문에 시 부문에도 당선된 바 있다.

韓 영화인 5명, 美 아카데미 회원 위촉

영화감독 임권택과 봉준호, 배우 최민식과 송강호, 애니메이션 전문가 김장진이 미국의 대표적인 영화상인 아카데미상을 주관하는 예술과학아카데미의 신입 회원으로 위촉됐다. 한국 영화인의 아카데미 회원 위촉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매년 2월 열리는 아카데미 시상식 수상자 투표권을 갖게 됐다. 영화계에서는 이번 신입 회원 위촉을 통해 향후 한국영화의 아카데미 외국어영화상 입상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카데미 측은 5명에게 회원 등록 동의서를 발송했고 서명과 동시에 회원 활동을 시작한다.

이문세, 3년 만에 '숲 속 음악회' 재개



가수 이문세(사진)가 3년 만에 숲 속 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문세는 8월8일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허브나라 야외공연장에서 '이문세 숲속 음악회'라는 제목의 공연을 벌인다. 같은 이름으로 2003년 시작한 이 음악회는 이문세가 주축해 2012년까지 모두 7번 열렸다. 이후 이문세의 갑상선암 투병으로 중단됐다가 올해 재개된다. 이번 공연은 숲 속에서 진행되는 만큼 한정된 인원만 입장할 수 있다. 좌석은 600석으로 예약은 7월6일부터 공연장소인 허브나라농원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진다. 이문세는 공연 수익금을 독거노인 돕기에 기부한다.

영화 랭킹

자료:영화진흥위원회
6월 21일~6월 27일

1위 영화
정보보기



순위	영화	주간관객	누적관객	개봉일
1	극비수사	1,203,436	2,010,002	06/18
2	쥬라기 월드	1,191,69	4,184,107	06/11
3	연평해전	991,161	998,407	06/24
4	소수의견	155,117	165,487	06/24
5	경성학교: 사라진 소녀들	143,665	338,515	06/18
6	샌 안드레아스	76,795	1,710,468	06/03
7	나의 절친 악당들	73,174	75,548	06/25
8	19금 테드 2	64,907	65,042	06/25
9	매드 맥스: 분노의 도로	48,540	3,823,478	05/14
10	심야식당	47,932	77,274	06/18

김선아·한선화, 부메랑으로 돌아온 SNS

역풍 맞은 스타들의 SNS

김선아 '복면검사' 촬영지연 불만 글
상습지각 논란 역풍...이미지에 타격
한선화도 불화설만 증폭...뒷말 무성

연기자 김선아가 SNS를 통해 KBS 2TV 드라마 '복면검사' 촬영에 대한 불만을 털어 냈다가 역풍을 맞고 있다.

김선아는 27일 SNS에 "다른 촬영에 밀린 '복면검사' 팀! 한 두 번이어야 화가 나지. 이전 헛웃음만. 아침부터 다들 똥개훈련 제대로 하네. 검토하다 다친 곳이나 치료하러 가야겠어. 웃으며 촬영하기에도 이전 지쳐. 자꾸 이러면"이라는 글과 함께 관련사진을 게재했다. 촬영이 예정된 시간보다 늦어지면서 자신

의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것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은 것이다.

하지만 이날 '복면검사' 촬영지에서 다른 광고촬영이 진행되면서 불가피하게 드라마 촬영이 늦어진 것으로 확인됐고, 김선아는 해당 SNS 게시물을 삭제했지만 문제는 다른 방향으로 번졌다. 김선아가 당시 촬영장에 오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상습적으로 지각해 드라마 촬영이 지연된 적이 많다는 일부의 주장이 나오면서 김선아는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다.

결국 28일 '복면검사' 책임 프로듀서가 "김선아가 촬영장에 오지 않은 이유는 부상치료를

위한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김선아의 SNS글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특히 주연배우인 그가 종영을 4회 앞두고 설화(舌禍)를 일으키면서 촬영장 분위기도 어수선해졌다.

앞서 걸그룹 시크릿 한선화는 동료 멤버 정하나가 한 TV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의 술버릇을 이야기한 것을 두고 SNS에 불만의 글을 올린데 이어 25일에는 전남 또 다른 멤버 전효성이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불화설을 해명한 것에 대해서도 "잠이 들려다 깬다. 그게 아닌 걸"이라는 글로 오해를 증폭시켰다.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는 "개인적인 일 때문에 올린 글이며, 불화설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지만 무성한 뒷말을 남기고 있다.

SNS는 스타와 팬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으로 친밀감을 갖게 해준다. 그러나 스타의 SNS는 누구나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적인 공간'으로만 볼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때문에 SNS 활동에도 책임의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대형기획사 대표는 "일부 스타들이 자신의 SNS 글이 기사로 생산되는 것을 역이용한 후 논란이 커지면 삭제하거나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않는 것은 책임회피다"면서 "SNS는 활용을 잘하면 소통 창구가 될 수 있지만 잘못된 경우 끝없는 논란을 양산하는 '양날의 검'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김선아

한선화

컴백 앞둔 소녀시대, 뮤직비디오만 3편

한 앨범에 뮤직비디오 3편은 '이례적'
내달 중순 컴백...공격적인 활동 예상

소녀시대가 7월 컴백을 준비하면서 세 편의 뮤직비디오를 찍은 사실이 확인됐다. 소녀시대가 한 앨범을 위해 한꺼번에 3편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전례가 없어 이번 세 음반의 활동방식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진다.

28일 한 관계자에 따르면 소녀시대는 벌써 다섯 번째 정규앨범을 준비하면서 모두 3편의 뮤직비디오를 촬영했다. 홍원기 감독의 연출로 태국 코사무이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진 뮤직비디오는 그 중 한 편이다. 소녀시대 컴백이 애초 5월에서 6월, 다시 7월로 연기된 것도 뮤직비디오 제작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녀시대가 세 편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했

다는 것은 그만큼 공격적인 활동을 벌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세 곡을 타이틀곡으로 앞세워 활동에 나서는 방식이거나, 앨범에 앞서 수록곡을 먼저 공개하는 '선공개 싱글' 방식도 예상된다. 어떤 방식이든 소녀시대는 과거에 비해 한층 더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

소녀시대의 이번 음반은 작년 제시카의 탈퇴로 8인조가 된 이후 처음 발표하는 국내 앨

범이고, 2013년 1월 이후 2년 6개월 만에 발표되는 정규앨범이라 대중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소녀시대 역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완성도에 더더욱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소녀시대는 7월 중순 컴백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일정은 28일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소녀시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조만간 컴백시기가 확정된다"고 밝혔다.

김원경 기자 gymmy@donga.com



남랑특집 드라마의 빈자리를 스틸러 장리가 대신하면서 수애·주지훈의 '가면', 박성웅·김범의 '신분을 숨겨라', 김무열·이시영의 '아름다운 나의 신부' (왼쪽부터)가 주목받고 있다.

사진제공 | SBS·tvN·OCN

여름 안방극장 스틸러물 잔치

'가면' '신분을 숨겨라' '아나신' 등 눈길

안방극장에서 몇 년째 나오지 않는 남랑특집 드라마의 빈자리를 스틸러물이 대신하고 있다.

현재 방송중인 SBS 수목드라마 '가면'과 케이블채널 tvN '신분을 숨겨라' OCN '아름다운 나의 신부' 등은 미스터리와 추리, 스틸러 장르로 '귀신 드라마' 못지않은 긴장감으로 여름밤의 열기를 식힌다.

수애와 주지훈 주연 드라마 '가면'은 재벌가에서 펼쳐지는 살인과 음모, 배신으로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살아남기 위해 속고 속이는 과정이 휘몰아치면서 손에 땀을 쥐

게 하는 미스터리라는 동시간대 시청률 1위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원동력이다.

'신분을 숨겨라'와 '아름다운 신부'도 여느 귀신 드라마 못지않은 긴장감을 준다. 김범과 박성웅이 주연한 '신분을 숨겨라'는 도청, 감청, 잠입 등 범죄와의 전쟁을 벌이는 특수수사대의 이야기다. 범죄 드라마를 표방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 펼쳐지는 스틸러 있는 이야기들로 더위를 잠시나마 잊게 해준다.

김무열·이시영 주연의 '아름다운 나의 신부'도 마찬가지다. 사라진 신부를 되찾기 위해 자신을 극한까지 몰아붙이는 한남자의 순애보가 줄거리지만, 미스터리라는 큰 장르 안에서 소름 돋는 반전에 반전이 더해지며 '남랑 드라마'를 대신하고 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

수술없이 강한남자 뉴맨!!

대표이사 서영숙

특허 제 10-0756243 호
(PATENT NUMBER)
발명의명칭 (TITLE OF THE INVENTION)
정기능 강화용 링
* 국내 최초 유일 특허 *

중국지사 T. 0433-286-5031
지사장 권대근

일본지사 T. 03-6233-8994
지사장 호시 고우지

세월 앞에 장사 없다!!

세월의 흐름을 가장 먼저 느끼는 남성의 심벌
힘도 약하고 중간에 시들키고 사이즈도 작아지고

특허청 최초 발명특허!

발명의명칭 "남성 성 기능 강화용 링"
세계최초 유일의 3개 부분 발명특허
2.5mm마다 차별화된 38가지 사이즈 '뉴맨'

뉴맨홈페이지에서 후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사용즉시 나타나는 막강 파워!

- 1.힘이 약하다 ➡ 20대의 막강 파워!
- 2.잘 시들키 ➡ 끝까지 강력하게!
- 3.작고 빠르다 ➡ 20~30% 더 커져서 오래도록!
- 4.확대시술 후 약화된 강직도 ➡ 강하고 단단하게!

세계인의 자존심 '뉴맨'

출시 10년만에 60만고객돌파! 일본과 중국 지사 설립
동남아 국가를 비롯하여 전 세계 20여개국 판매

· 뉴맨 출시 10년! 60만고객 돌파 !!

· 안전하고 과학적인 발명특허 제품 !!

NAVER 에서 뉴맨 을 검색하세요

DJm 에서 뉴맨 을 검색하세요

핸드폰 주소창에서 뉴맨.kr 을 입력하세요.

안녕하세요, 텔런트 김형일입니다.
사람들은 가끔 어떤일에 대하여 감동이나 기적을 말하죠?
제가 직접 체험해 본 "뉴맨"! 기적이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삶의 질을 바꾸는 '뉴맨!' 감동하실겁니다.

평상시 사이즈	뉴맨 로우
6.5이하	주문 제작
6.5cm	1호
6.75cm	2호
7cm	3호
7.5cm	4호
7.75cm	5호
8cm	6호
8.25cm	7호
8.5cm	8호
8.75cm	9호
9cm	10호
9.25cm	11호
9.5cm	12호
9.75cm	13호
10cm	14호
10.25cm	15호
10.5cm	16호
10.75cm	17호
11cm	18호
11.25cm	19호
11.5cm	20호
11.75cm	21호
12cm	22호
12.25cm	23호
12.5cm	24호
12.75cm	25호
13cm	26호
13.25cm	27호
13.5cm	28호
13.75cm	29호
14cm	30호
14.25cm	31호
14.5cm	32호
14.75cm	33호
15cm	34호
15.25cm	35호
15.5cm	36호
15.75cm	37호
16cm	38호
16이하	주문 제작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www.newm.kr 15일 사용후 효과 없을시 100% 반품 · 환불

T. 1588-3346, 010-8020-3346

서울시 서초구 바우뎃로9길 20 (우면동) (주)케이앤제이스포츠
통신판매 허가 번호 0701호